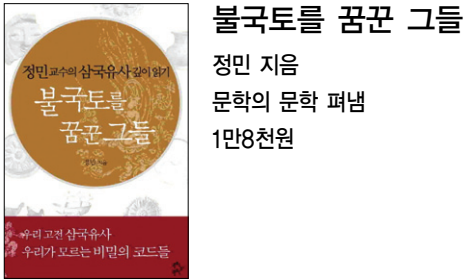


삼국유사 명쾌하게 읽어주는 책



불국토를 꿈꾼 그들
정민 지음
문학의 문학 펴냄
1만8천원

《삼국유사》를 읽어준다. 알듯 말듯 난맥처럼 얽혀 있는 이야기들을 불교를 중심으로 하여 활발한 상상력과 명쾌한 지적 추리력으로 파헤쳐나간다. 책 읽어주는 책이다.

《삼국유사》는 단군 조선에서 통일신라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고전이다. 《삼국사기》와 함께 우리의 역사와 과거의 문화를 알게 해주는 소중한 사료다. 이런 《삼국유사》는 1972년에 완역본이 출간된 이래 많은 관련 연구와 출간이 있어왔다. 끊임없이 들여다 보게 되는 텍스트인 것이다. 볼 때마다 다르게 보이는 텍스트인 것이다. 그것은 저자인 일연 스님의 독특한 언어가 지닌 탄력 때문일 것이다. 현실과 비현실을 허물고 넘나드는 노련한 그의 언어로 인해 후대의 독자는 그 변화무쌍한 스펙트럼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불국토를 꿈꾼 그들》은 그런 스펙트럼 사이사이에 은유된 언어들을 읽어준다.

“백제에 미륵사가 있었다면 신라엔 황룡사가 있었다. 황룡사는 신라인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두 가람의 중앙에 우람하게 솟았던 9층 목탑에는 어떤 염원이 담겼나? 전불(前佛)시대의 가람터란 무슨 뜻인가? 부처들이 여기저기 땅속에서 불쑥불쑥 솟아나고, 불상과 탑과 종의 규모는 상상도 할 수 없을



황룡사지 장륙삼존대좌와 심초석. 사진중앙부 9층 목탑지 중심에 놓여 있는 큰 돌이 가섭불연좌석이라는 설이 있다.

만큼 컸겠다. 신라와 백제는 왜 전쟁 중이었음에도 엄청난 물력을 쏟아 부어가면서 대규모 사찰 건립에 경쟁적으로 몰두했을까? 그 속사정이 궁금하다.” 책은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의 사람들 의식에 불교가 어떻게 뿌리내리고 있었는지, 다각적인 기술과 흩어져 있는 의미의 재조합 등을 통해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삼국유사》 제4. ‘탐상’ 편에는 가섭불의 연좌석 이야기가 나온다. 신라인들이 말했던 불국토의 중심축 황룡사와 9층탑 이야기다. “신라 월성 동쪽 용궁 남쪽에 가섭불의 연좌석이 있다. 그 땅은 바로 전불 시대의 가람터다. 지금 황룡사의 땅은 이 일곱 가람의 하나다. 국사를 살펴보니, 진흥왕 즉위 14년(533),

기원전 인도를 출발한 아쇼카의 배 1300년만에 신라의 땅에 도착

개국3년 계유 2월에 월성 동쪽에 신궁을 세우는데, 황룡이 그 땅에 나타나므로 왕이 이를 의심하여 고쳐 황룡사라 하였다. 연좌석은 불전 뒷편에 있다.” 이어지는 ‘장륙존상(丈六尊像)’ 이야기다. “얼마 되지 않아, 바다 남쪽에서 한 척의 큰 배가 하곡면의 사포로 와서 정박했다. 살펴보니 침문이 있는데, 이렇게 적혀있었다. ‘서축(인도)의 아유왕(아쇼카왕)이 황철 5만7천 근과 황금3만 톤을 모아서 장차 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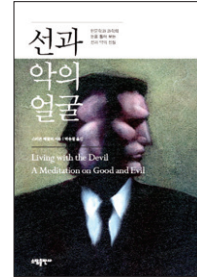
가삼존상을 주조하려 했으나 이루지 못하였다. 배에 다 실어 바다로 떠내려 보내며 빌었다. 원컨대 인연 있는 나라 땅에 이르러 장륙의 존용을 이루소서.” 일연의 《삼국유사》에서, 어디서도 주조하지 못한 장륙존상을 신라는 단 한 번에 완성한다. 책이 《삼국유사》를 다시 읽어준다. “기원전에 인도를 출발한 배가 그 많은 크고 작은 나라와 8만 개의 촌락을 거쳐 약 1300여 년 만에 신라 땅에 도착했다는 이야기니, 사실의 언어로 받아들일 일은 애초에 못 된다. 결국은 인도의 아쇼카 왕의 염원을 이어 신라 땅에서 장륙존상을 조성해 전불시대의 가람터에 봉안했다는 의미만 취할 수 있다. 하지만 일연 스님은 이중 삼중으로 관련 문헌 근거를 반복 배치함으로써 황룡사 9층탑이 갖는 영험을 부각시켰다. 또한 황룡사 장건에서 9층탑의 건립에 이르는 90년의 대역사가 오로지 부처님의 설리에 의해 전불 시대의 자취를 되찾고, 국내민간의 염원을 성취하는 과정이었음을 밝힌다.” 일연의 삼국유사는 90년의 역사를 그렇게 잡아 놓았던 것이다. 《불국토를 꿈꾼 그들》이 다시 읽어준다. 18세기 문화를 꾸준히 탐구해 왔던 저자는 삼국유사에 허튼 소리가 하나도 없다고 단언한다. “승려이자 당대의 지식인이었던 일연 스님은 고문헌에 관한 방대한 지식과 발로 뛰는 현장 탐방 등으로 자료에 신빙성을 더하고, 개개의 이야기가 갖는 의미가 정보의 네트워크처럼 서로 연결되도록 장치해 두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이 서로를 보완하고 있다. 또한 모든 것이 무엇인가 지향하고 있으며, 곳곳에 의미의 발화점을 숨겨놓고 있다.”고 말한다. 저자의 예민한 촉수가 우리를 그 곳으로 인도하고, 때로는 저자 자신조차 수수께끼를 던지며 함께 풀어가는 새로운 고전 읽기다.

박재원 기자 waniholl@hyunbul.com

선과 악은 인간의 본성 분리될 수 없는 양극단

선과 악의 얼굴

스티븐 배첼러 지음 | 박용철 옮김 | 소담출판사 펴냄
1만3천8백원



부처님이 나란자라 강둑 위에 살면서 자유를 찾기 위해 명상 수행에 몰입하고 있었다. 그때 마라(魔羅)가 부처님에게 다가와 연민에 가득 찬 얼굴로 말을 걸었다. “그대는 너무나 아귀고 창백해 보이는군요.” 그리고는 다시 말했다. “이러다간 곧 죽고 말 것이요. 살아야 하지 않겠소? 그대야 삶을 살며 선업을 많이 행할 수 있을 테니 말이지요.” 티베트에서 8년, 한국 송광사 구산 스님 문하에서 4년간 선불교를 공부한 영국의 불교학자 스티븐 배첼러의 ‘선’과 ‘악’의 탐구와 해석이다.

부처님이 말했다. “나는 나를 에워싸고 있는 너의 군대를 본다. 마라여! 만약 온 세상이 모두 너에게 굴복한다 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나는 돌맹이로 구워지지 않는 그릇을 깨버리듯, 지혜의 힘으로 너의 군대를 그렇게 박살낼 것이다.” 부처님이 유혹을 물리치자 마라의 힘은 무용지물이 됐다. 부처님은 번뇌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번뇌와 함께하되 사로잡히지 않는 새로운 길을 발견했던 것이다. 마라는 쓸쓸히 독백한다. “고타마와의 싸움은 이제 끝났다.”

《붓다는 없다》와 《연꽃 속의 보석아여》의 저자는 불교 경전을 해석하고 연구하는 데 평생을 바친 불교도인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종교 단체나 학문에 얽매이지 않고 불교적 무신론자이자로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왔다. 저자는 불교적 무신론자의 입장에서 인간의 본성인 선과 악을 깊이 있게 탐구하여 인간의 고통을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했다. 인간의 두려움과 욕망, 세상의 혼돈과 갈등 등 모든 고통의 근원을 인간의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악마’의 지배 때문이라고 보고, 그 악마를 받아들이고 이해함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우리는 왜 고통스러우니까? 세상은 왜 수많은 갈등으로 가득 차 있을까? 저자는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 ‘세상의 고통은 악마의 지배 때문’이라고 답한다. 오랜 세월 이분법적으로 구분되어 왔음을 지적하며, 불교에서의 악마, 즉 ‘마라’란 선과 동일한 존재에서 나타나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양극단임을 설교한다. 이렇듯 인간의 삶을 지배해온 악마와의 동거가 숙명적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악마를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평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불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조로아스터교에 이르는 거의 모든 종교와 신화, 보들레르, 카프카, 막스 베버 등의 문학, 사회, 철학, 심지어 진화 생물학 등을 종합하면서 선과 악의 패러다임이 인간 사회를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박재원 기자

박재원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해민	생앤패커스
2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3	깨달음	법륜	정토출판
4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정목	공감
5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만덕, 만현	한지공헌지사
6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출판
7	산사는 길다	지안	불광출판사
8	천년사찰 천년승길	여태동	클리어마인드
9	사찰의 상징세계	지현	불광출판사
10	우리가 모르고 쓰는 생활 속 불교용어	방경일	운주사

※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 3672-7181

지장보살 신앙성과 다라니 유용성 밝히다

지장보살다라니수행법, 지장보살신앙 연구

무통 스님 지음 | 해조음 펴냄 | 3만원



《지장보살 신앙 연구》는 저자 무통 스님이 2012년 불 위덕대학교에서 취득한 석사학위 논문으로서 기존의

통념적인 지장보살의 이해를 넘어 위경 논란에서 벗어난 《대방광심경》, 《대방등대집경》, 《대승대집지장심경》을 토대로 지장보살의 원류적 신앙성을 밝혔으며, 한 질로 묶여 출간된 《지장보살다라니 수행법》은 보살신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다라니의 유용성에 대해 집중했다.

명부세계의 교주로서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중생을 영겁도록 제도하겠다는 비원(悲願)을 세운 지장보살의 대원은 그 원의 크기가 대승불교의 모든 보살 중에서도 으뜸이다. 그런 지장보살을 신

봉하는 지장보살신앙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신봉되어 온 보살신앙 중의 하나로서 《대승대집지장심경》 10권, 《지장보살본원경》 2권, 《집삼신약업보경》 2권 등의 경전을 근거로 하여 성립된 신앙이다. 우리나라의 지장보살신앙은 신행 차원보다는 지장보살의 분원력에 따라 조상들의 사후(死後) 구원을 위한 믿음으로 발달되어 왔다. 그 동안의 지장보살에 대한 많은 논지와 연구를 또한 대부분 민간신앙과 결합된 형태의 차원이거나 무속신앙과의 혼재 속에서 다뤄진 단편적인 성과에 불과했다. 《대방광심경》과 《대방등대집경》, 《대승대집지장심경》을 일차적 전거로 삼은 《지장보살신앙 연구》는 지장보살의 대원행과 다라니문을 경전과 대비하면서 구체적으로 지장보살신앙의 핵심적인 신앙성을 밝혔다. 지장보살의 정체성에서는 ‘극락왕생의 직전 지대, 즉 예도와 명부의 유행들을 성숙시켜 정도왕생의 조건을 완성해 주는 보살’이라고 정의하며 기존의 범 정토 신앙과는 거리를 두었다. 지장보살신앙의 본의를 정립했으며, 지장보살 관련 경전에서 말하는 다라니의 의미를 밝혀 지장보살 신앙의 여러 의례가 교리적 의미를 상징하는 형식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했다.

박재원 기자

박재원 기자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일깨워 건강과 행복을 부르는 천연향

동의보향

DONGUIBOHYANG

동의보향은 한방약재 중에서 향이 좋은 생약을 엄선하여 제조한 한방방향제입니다. 생활공간에 그냥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숲속의 아침처럼 청정하고 상쾌한 천연향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동의보향은 화학성분의 방향제와는 달리 심신을 안정시키고 건강한 생활을 지켜주는 향기보약입니다.

동의보향 무료 향기 체험

백문이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 향기를 직접 맡아보고 구입하실 수 있도록 진화주시면 바로 제품을 보내드립니다. (택배비용 본사부담)

동의보향 덤 증정 행사

선물용 대량구매시 수량별 추가 덤 증정 (전제품 선물용 소포팩 포함)

동의보향은 한점 한점 수작업으로 정성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동의보향은 자동차, 공부방, 침실, 거실, 장롱 등 실내공간을 은은한 향기로 가득 채워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천연향입니다.

평소 고마운 마음을 아름다운 향기로 선물하세요. 주는 이의 마음을 오래도록 기억할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동의보향 복주머니 (12x19cm, 100g)

제조원 수풀림 주문전화 (062)385-9954 010-5607-3313

입금계좌 농협 810-02-157670 (박해숙)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32,300원
(사은품: 희담석합장주 (날개) 1만원)

- 크기: 직경 10mm
- 희담석 108염주 출시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걸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빠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 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물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주문: 현대불교 현대불사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